

천년의 고도(古都): ‘마음’이 있었다

“시공을 초월해 빛나는 유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더하는데,
그 안에 그들의 ‘마음’과 ‘염원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.”

인류 최초의 발명품은 무엇일까? 그것은 흙으로 빚은 토기이다. 3,000여 년 전 채집과 수렵의 끝을 전전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진흙이 불에 달궈지면 돌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. 토기를 만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물질의 저장과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.

박물관에서 그들이 소중하게 빚고 간직했을 토기들을 보느라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. 향아리 표면에 아주 가지런히 무늬를 넣은 붉은색 빚살무늬 토기는 자세히 보면 각각각색으로 만들어져있다. 장난스레 눈, 코, 입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, 다른 기하학적 문양들을 정성껏 그려넣기도 하였다. 유희적 예술성을 가진 인간, ‘호모루덴스’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.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핏속에 그 선조들의 DNA가 찬란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.

고도(古都)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신라의 아이콘은 엄청난 크기의 무덤이다. 직경이 수십 미터에서 백 미터를 훌쩍 넘는 것까지 다양한데, 이는 당시 지배세력들의 힘과 위용을 그대로 드러낸다. 그들은 무덤 안에 수많은 재물과 함께 저승길에 동행 할 사람들과 묻었다. 당시 귀족들은 저마다의 조상신이나 자연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. 법흥왕(514~540)은 불교를 통해서 넘쳐나는 미신과 사회적 악습들을 차단하고 장례문화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무덤의 크기도 줄였다. 이러한 혁신은 귀족들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혔지만, 이후 통일신라를 만들고 문화대국으로 융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.

선사시대에서부터 천년의 고도, 통일신라시대 왕국의 유물들을 보며 나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. 역사에 정답은 없다. ‘정의(正義)’는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거나 해석되어질 수 있다.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 빛나는 유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더하는데, 그 안에 그들의 ‘마음’과 ‘염원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.

2016년,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. 우리는 올 한 해 कै릿의 역사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가? 하나 하나 CARROTian의 ‘마음’을 합하고 ‘염원’을 만들어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!

Written by C.E.O James Roh(노상충)

태초에 ‘마음’이 있었다



James Roh

